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6권의 특집주제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 책임’으로 정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은 2011년 산모들이 급성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민사상, 형사상 사건으로 전개되었고, 검찰도 2016년 1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이러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의 법적문제에 주목하고 2015년 9월 2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각 분야에서 모신 6명의 전문가가 글을 발표해 주셨고 이 중 2편은 특별기고문으로, 2편은 학술논문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에 실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반연구논문으로는 모두 6편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여섯 편의 일반연구논문들도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분야에서 긴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16권이 발간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님, 강원대 로스쿨에서 저와 함께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박시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환경법센터 교수윤 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